

도

첨가, ~도, ~조차

이미 말한 것에 명사를 더해 줍니다. 형태는 하나뿐이라 받침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지만, 다른 조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명사	도 — 변화 없음	저도 / 밥도
이/가를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친구도 — 친구가도(×)
을/를을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커피도 — 커피를도(×)
에, 에서, 한테 뒤	겹쳐 붙음	학교에도
부정과 함께	~조차	물도 안 마셨어요
고정 표현	부정 필요	아무도 없어요 / 하나도 몰라요

■ 언제 쓰나요

도는 “이것도 마찬가지”라는 뜻입니다. 이미 앞에 언급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: 저도 갈게요 — 다른 누군가가 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.

부정 동사와 함께 쓰면 뜻이 “~조차”로 바뀝니다. 물도 안 마셨어요 — 물 한 모금조차 ~않았다는 뜻입니다. 아무도(아무도 ~않다)와 하나도(하나도 ~않다) 두 단어는 이 패턴으로 굳어져 반드시 부정과 함께 씁니다.

구조적으로는 은/는와 비슷하게 동작합니다. 즉 이/가와 을/를의 자리를 대신하며 나란히 붙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에, 에서, 한테, (으)로 뒤에는 문 제없이 겹쳐 붙습니다.

■ 예문

- 1 저도 한국어를 배워요.
- 2 커피도 차도 다 좋아해요.
- 3 집에도 학교에도 없었어요.
- 4 한 명도 안 왔어요.
- 5 이것도 주세요.
- 6 동생도 같이 갈 거예요.

■ 비교

만
도는 대상을 더하고, 만은 나머지를 모두 배제합니다. 같은 자리에 들어가 서로 깔끔하게 바뀌 쓸 수 있어서 함께 연습하기 좋은 짝입니다.
저도 갈게요. (나도 가겠다) / 저만 갈게요. (나만 가겠다)

은/는
둘 다 이/가와 을/를을 대신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. 은/는은 하나를 나머지와 구별하고, 도는 나머지와 한데 묶습니다.
저는 갈게요. (나는 가겠다 — 다른 사람은 모름) / 저도 갈게요. (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가겠다)

또
또는 “다시”나 “게다가”라는 뜻의 부사로, 명사에 붙지 않고 동사를 꾸밉니다. “~도”의 의미는 도가 담당하며 또가 아닙니다.
저도 왔어요. (나도 왔다) / 또 왔어요. (다시 왔다)

■ 주의

- ✗ 저는도 갈게요.
- 저도 갈게요.
도는 은/는, 이/가, 을/를 뒤에 겹쳐 붙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 에, 에서, 한테 뒤에는 겹쳐 붙습니다.
- ✗ 커피를도 주세요.
- 커피도 주세요.
목적어 쪽도 같은 규칙입니다. 도 앞에서는 을/를을 빼십시오.
- ✗ 교실에 아무도 있어요.
-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.
아무도와 하나도는 부정 동사와만 씁니다. 누군가 있다고 말하려면 누가 있어요 또는 사람이 있어요를 쓰십시오.